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학회장을 맡은 영남대학교 김삼수입니다.**

회장의 중책을 맡아 우리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섬유산업은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의 비중 감소와 경쟁력 열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를 비롯한 섬유 관련 학회의 경우에도 회원 수 감소에 따른 학회의 위상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염색가공학회가 국내 염색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연구를 통한 학회지 발간과 학술발표회를 통한 R&D 성과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산·학·연이 실제 교류할 수 있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한 해 동안 학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내 염색 및 섬유 관련 기업체로 부터 기업 특별회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술교류는 물론 기술세미나를 비롯한 산·학·연 공동의 기술교류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잘 계승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학회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제16대 회장 김삼수

## 회원 여러분께

무술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15대 학회장을 맡은 영남대학교 김삼수 입니다.**



회장의 중책을 맡아 우리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섬유산업은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의 비중 감소와 경쟁력 열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를 비롯한 섬유 관련 학회의 경우에도 회원 수 감소에 따른 학회의 위상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염색가공학회가 국내 염색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연구를 통한 학회지 발간과 학술발표회를 통한 R&D 성과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산·학·연이 실제 교류할 수 있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한 해 동안 학회의 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내 염색 및 섬유 관련 기업체로 부터 기업 특별회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술교류는 물론 기술세미나를 비롯한 산·학·연 공동의 기술교류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학회의 첫 행사는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PID기간에 춘계학술발표회(2018. 3. 7)를 갖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른 시기에 학회가 개최되지만 많은 국내 섬유업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기에 학술발표회가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잘 계승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학회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제15대 회장 김삼수

## 한국염색가공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4대 회장 유동일 인사드립니다.

2016년 병신(丙申)년 새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창설된 우리 학회는 제13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4반세기를 넘겼습니다. 내용면에서, 전보다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였고 젊은 세대가 학회활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집행부의 헌신과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신임 회장으로써 역대 회장님들, 역대 임원진, 학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회원님들, 그리고 관련 산업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학회는 학술발표회(춘계, 추계), 하계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 차례의 International Conference(2003, 2009, 2010)를 유치하면서 건실한 학회로 성장하였고 정기간행 학술지, 염색가공용어사전, 모발염색 등의 단행본, 염색가공 기술지와 같은 성과물이 얻어졌습니다.

지난해 후반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한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 학술지 유지로 결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2014년 KCI IF지수가 1.096(전체 698개 등재 학술지 중 13위)이라는 내용이었습니. 솔직히, 이러한 결실은 제13대 윤남식 회장님의 리더십과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회원을 대표하여 윤 회장님을 비롯한 제13대 집행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로 나아가라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양적, 질적 개선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학술지를 개선하고 학술행사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 부디 학회 활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금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 세상이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14대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 학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제14대 회장 유동일

## 존경하는 한국염색가공학회 회원 여러분!

2014년 甲午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열정과 사랑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3대 회장직을 맡은 윤 남 식 입니다.**

한국염색가공학회는 1989년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 입니다.  
지난 25년간 전임 회장님들(장병호 박사, 김경환 박사, 조 환 박사, 임용진 박사, 박병기  
박사, 오세화 박사, 조용석 박사, 박수민, 박사, 허만우 박사, 남성우 박사, 최창남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섬유와 더불어 섬유교육과 염색가공산업  
개발을 위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으며, 특히 대내  
외적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우리 학회는 춘계학술발표회, 추계학술발표회, 하계 세미나 등의 정기행사를 매년 개최하  
였고, 2003, 2009, 2010년 3회 International Conference 유치하였으며, 염색가공용어사전,  
모발염색 등의 단행본과 한국염색가공학회지(Textile Coloration and Finishing) 정기 학술  
지 발간, 염색가공 기술지를 발간함으로써 학회로서의 그 역할과 목적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학술행사로는 춘계학회(영남대학교 확정), 추계학회(부산 BEXCO 예정), 세미나(제주도  
예정)가 있으며, 하반기에 DYETEC연구원 20주년과 병행하여 '한국염색가공학회 창립 25주  
년 심포지움'이 개최 예정입니다.

다양한 행사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특히 '한국염색가공학회 창립 25주  
년 심포지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리 학회의 높은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제12대 회장 최창남 교수 대행업무와 제 13대 한국염색가공학회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걱정도 앞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학회활동에 모든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염색가공학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신한 젊은 회원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적극적인 학회활동의 참여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학회의 기초를 다지고 성장시키신 전임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학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회원님들과 관련 산업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염색가공학회에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  
**13대 회장 윤 남 식**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용은 용기의 상징입니다. 용의 모습을 본 받아 올해는  
더욱 용기 있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 제12대 회장 최 창 남 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학회는 제 11대 남성우 회장님 및 임원진의 노력으로 섬유공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ATC(Asia Textile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분들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논문발표회, 기술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및  
여타의 산학협력사업을 통하여 염색가공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고급인력양성에 일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염색가공 기술은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만 적용시킬 뿐만아 니라  
나노 산업, 바이오 산업, 친환경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도 적용시켜, 이들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핵심 기술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색가공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회의 여타 학술활동 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는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강건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1월 1일  
12대 회장 최 창 남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1대 회장 남 성 우 입니다.**

우리 학회는1989년에 창립한 이래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학회가 오늘날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역대 회장님이하 여러 임원진의 노력은 물론 지금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정렬과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학회가  
처음 창립될 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새로 선임된 임원진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제2의 도  
약기에 접어든 우리 학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래 섬유산업은 여러 여건상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연구소 및 업계의 구조 조정을 통한 인력의 감소는 미래 역량을 기대할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유산업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여 현시대  
가 요구하는 것들을 재빨리 파악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임원진은 학회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더욱 충실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업계 및 관련 단체들과 관계  
를 돈독히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해에 이어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학회지를 SCI-E로 추진 등 더욱 내실을 다  
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백호의 기세로 하시는 모든 일에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월 1일

**제11대 회장 남 성 우**

무자년 새해를 맞아 한국염색가공학회 회원 여러분께  
올 한해에도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제10대 회장 허 만 우입니다.**

1989년에 창립한 우리 학회는 어언간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학회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보내주신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을 맡으신 우리들의  
은사님과 선배님들의 정열과 노고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두렵기도 합  
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  
실 것을 확신하며 새롭게 선임된 임원진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섬유산업은 여러 여건상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섬유산업  
분야에 산학연관 관련자 모두 노력하여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연구소, 업계 모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의 감소는 미래 역량을 기대할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섬유산업분야에서 일하  
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각오를 새롭게하여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임원단은 학회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내적으로는 더욱 충실하고 외적으로 더욱 발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는 우리 학회가 창립된지 20주년  
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는 업계와 관련 단체들과 관계를 돈  
독히 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섬유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계신 회원님의 간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하  
시는 모든 일에 큰 결실이 있기 기원합니다.

2008년 1월 1일  
**10대 회장 허 만 우**



2006년 (丙戌年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9대 회장 박수민입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60,70년대 핵심 기간산업으로서의 발전기와 수출 주력산업으로 70년대 국가 전체 수출량의 40%를 담당했던 성장기, 87년 단일 품목으로 100만불 수출 절정기를 거쳐 확장기, 우리나라 경제의 고난기인 97년 외환위기에도 100억불 흑자를 내고 2002년엔 157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진국 무역장벽, 수입 규제, 섬유 쿼터제의 폐지, 후진국의 추격 등 국내외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대비하여 섬유산업의 구조개선, 노동집약적 구조의 탈피, 섬유제품의 고급화, 차별화,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섬유 산업에서 염색 가공분야의 기여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흐름의 와중에 우리학회는 섬유산업의 핵심으로 염색가공분야를 전문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협력,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학회전문 법인단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적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염색가공분야는 물론 나아가 관련 섬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학술과 사회, 산업체의 기능 등 기본목적사업에 충실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 동안 어려운 고비에도 역대 회장님과 회원의 중심을 단결과 합심으로 노력하여 온 덕택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산업 경제의 우리학회의 의무, 공헌, 기여를 재삼 생각하고 현시대의 고차기술과 관련하여 함께 전진,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어느 때나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 왔고 극복할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학회의 산업의 교류에 맞추어 업무의 내실화와 제 2도약을 위한 기간으로 보다 심오한 대외적 학회활동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쏟고 싶습니다. 기술 대국을 꿈꾸며 염색가공 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첨단 선진국 기술로서의 발전, 국가적 중차적 임무수행을 재삼 생각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더욱더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월 1일

**9대 회장 박수민**

갑신년 새해를 맞아 우리 한국염색가공학회 회원 여러분께  
올 한해에도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8대 회장 조 용 석 입니다.**

학회 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업무로 인해  
금년부터는 신년도 시작과 함께 회장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중책을 맡은 데에 대한 두려운 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만 회원 여러분께서 지금껏 성원해 주신데서 힘을 얻고 앞으로도 적극적  
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 일해 보려고 합니다.

그간 우리 학회는 초대 장병호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설립된 이래 역대 회장  
님께서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눈부신 발전을 이룬 업적들이 새삼 감회를 자아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회원 단체 등록을 필두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건물 내에 안  
정된 사무실 확보 및 운영, 사단법인 설립 인가, 염색가공용어사전 발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 각국 학자들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치른 국제염  
색가공학술대회 등은 우리 학회의 저력을 잘 나타내는 업적들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땅의 빈곤퇴치의 주역을 담당해 왔고 또 근간의 어려운 경제  
사정 하에서는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소위 효자산업으로서의 섬유산업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워나가는 데에 우리 회원들이 기여해 온 역할이 지대  
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학회장님께서 튼튼하게 닦아 놓으신 학회의 기반과 우리 회원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임무나 역할을 달리하는 산·학·연 관련단체의 상호 협조를 통한 염색가공  
첨단지식과 기술의 접목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에 기여하는 회원님들의 간단없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여러 회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모두 큰 결실이 있길 기원합  
니다.

2004년 1월 1일

**8대 회장 조 용 석**

## 제7대 회장 오 세 화 입니다.

섬유의 대량생산기지가 경쟁국들에 들어서므로 해서 착수했던, 섬유사업으로는 유래가 없는 혁신적 사업,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수 품종 대량생산의 섬유산업형태에 소량 다수 품종의 경쟁력 있는 패션제품 창출기지를 실현해 섬유산업의 미래를 열어 가는 것이 우리 섬유과학기술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2월드컵 축구시합이 한창입니다.

시합은 90분여로 한정되지만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자신의 담당 역할을 위해 선수 하나 하나는 체력과 기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팀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내부의 경쟁, 견제, 질서, 그에 따른 분열과 개인주의는 최고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쉽게 패배하게 하고 또 매우 추해 보입니다.

48년 만에 한국 축구는 월드컵 예선에서 확실한 1 승을 거두었습니다. 온 국민적 열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올림픽, 마라톤, 전자 산업, 한강의 기적. . . . .**

우리는, 우리 한국민족은 한다고 마음먹고 목표를 정해 헌신하면 반드시 해내곤 합니다.

사양산업, 굴뚝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나라의 7대 기간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섬유산업은. 가장 많은 국민에게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섬유산업이 패션, 문화, 지식산업으로 변신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기부터 꾸준히 역할을 잘 수행해 온 섬유산업은 아직도 부가가치와 고용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섬유생산의 소량다품종화, 패션 문화상품화, 고도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 청정 산업화는 섬유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명제입니다. 염색가공을 포함하는 섬유제품 생산과정은 복잡다단한 요소기술들의 집합입니다. 이러한 섬유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성공적인 변신을 완성해 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값진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염색가공 뿐 아니라 전방 후방 단계에 종사하시는 섬유인 여러분들께 본 한국염색가공학회를 통해 "함께 성공하는 길"을 열어 가실 것을 청합니다. 실험실에서, 시험공장에서, 디자인 실에서, 시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섬유산업의 변신을 위해 각자의 전공의 깊이를 더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 운용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과 섬유인 여러분들의 도움을, 협력을, 동참을,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청합니다. 좋은 과제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섬유산업의 첨단 고부가가치산업화에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1일  
7대 회장 오 세 화